

간첩죄로 기소된 스티븐 김, 그의 외로운 법정투쟁

STEPHEN KIM Legal Defense Trust

HOME | ABOUT STEPHEN | ABOUT THE CASE | LEGAL DEFENSE TRUST | MEDIA COVERAGE | DONATE |

I am writing to ask for your support for my dear friend, a loyal and devoted public servant – Stephen Kim.

As you may know, on August 27, 2010, government lawyers announced that they were charging Stephen with the crime of unauthorized disclosure of national defense information. The government is alleging that in 2009 Stephen divulged classified information to a journalist about how a foreign country would likely respond to proposed international sanctions.

Stephen's lawyer, Abbe Lowell, has confirmed...

[read more...](#)



Join the Mailing List

Send your email to helpstephenkim@gmail.com to receive occasional updates on the grassroots effort to help Stephen.

Grassroots Support

Grassroots effort to publicize Stephen's plight, push the U.S. government to drop the case against him, and urgently raise funds for his legal defense.

[Learn more...](#)

Sign the Petition

We have created a petition in support of Stephen and have placed it online at:

<http://www.thepetitionsite.com/1/helpStephenKim/>. Please read and consider signing the petition. It is fast and easy to sign the petition online so please spread the word so we can get as many online signatures as possible.



글. 천영식
문화일보 정치부 차장

스티븐 김을 후원하는 지인들이 만든
'스티븐 김 변호 기금'
(Stephen Kim Legal Defense Trust)
홈페이지

[<http://stephenkim.org>] 캡처

스티븐 김(Stephen Kim)을 가장 함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미 국무부의 잘나가는 엘리트 관료이자 미 최대 핵 연구소인 리버모어 연구소의 연구원. 아니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하버드 석사, 예일대 박사의 최고 학력을 지닌 한국계 미국인. 환칠한 키와 시원시원한 이목구비에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소주를 들이키는 47살의 한국인. 그것도 아니면 하루아침에 간첩죄(Espionage Act)로 기소된 비운의 한국인? 스티븐에 대한 설명만으로도 원고지 몇 장을 채울 수 있다. 문화일보 워싱턴특파원으로 3년간 미국에 있으면서 너무나 가까이에서 그의 고통과 눈물을 보아왔기에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다. 지금도 스티븐과 함께 워싱턴 DC 지방법원을 드나들던 순간들이 눈에 선하다. 필자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스티븐은 홀로 법정에 나가고 있다.

스티븐 사건이란

스티븐 사건은 2010년 8월 한국 언론에 처음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미 국무부 검증국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Verification, Compliance, and Implementation)의 선임 보좌관이던 스티븐이 간첩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던 필자가 제1보로 보도했고, 국내 언론이 모두 이를 받아 대서특필했다. 자칫 한국에 소개되지도 않을 뻔 했던 이 사건은 이로 인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높은 관심을 끌게 됐다.

잘나가던 국무부 관료가 간첩죄로 기소됐다는 자체가 큰 충격이었다. 기소 내용도 한국인의 관심을 끌 만한 사안이었다. 스티븐이 북한 관련 정보를 폭스뉴스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흘렸다는 게 범죄혐의였다. 미 정부의 리크(Leak, 누설) 사건은 여러 건 있었지만, 이번에는 북한 정보가 유출된데다 잘나가는 한국계 국무부 엘리트가 연루됐고, 간첩죄라는 죄목을 썼다는 이유 등이 하나같이 쇼킹한 뉴스였다.

그는 기소되면서 하루아침에 국무부에서 일자리를 잃었다. 검증국 선임 보좌관이던 그는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보좌관으로 영전하기로 얘기가 끝난 상태였다고 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기소되면서 모든 게 없던 일로 돼 버렸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를 매일같이 들여다보며 미 국익에 봉사하던 그는 이제 간첩죄로 애국심을 의심받는 신분으로 변했다. 스티븐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닥친 그 같은 변화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스티븐은 물론 혐의를 부인했다. 폭스뉴스 기자를 만난 건 시인했지만, 기밀 정보를 흘린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법정투쟁으로 이어졌다. 미국에서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가 활성화돼 있다.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감해주는 제도이다. 법무부와 피의자가 교묘하게 타협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기소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피의자는 법정투쟁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형량을 줄이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많은 경우 이 같은 방식을 선택한다.

스티븐도 한동안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범죄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법정투쟁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법정투쟁은 길고 지루한 싸움이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또 개인이 홀로 미 정부를 상대해야 하는 외롭고 험한 길이다. 승산도 높지 않다. 스티븐은 2013년 8월 현재 이 법정투쟁으로 만 3년을 흘려보냈다. 그리고도 아직 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The New York Times

August 27, 2010

U.S. Analyst Is Indicted in Leak Case

By SCOTT SHAMIE

WASHINGTON — A federal grand jury in Washington has indicted a State Department analyst suspected of disclosing top-secret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to Fox News, the third time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filed criminal charges accusing people of leaks to the news media.

The indictment, dated Aug. 19 and unsealed on Friday, named Stephen Jin-Woo Kim, 43, of McLean, Va., a specialist in nuclear proliferation who worked as a contractor for the State Department. Mr. Kim, who has worked as a high-level foreign affairs analyst for a decade for various federal agencies, is accused of disclosing the information in June 2009 and of lying to the F.B.I. in September 2009.

Mr. Kim, an American citizen, pleaded not guilty on Friday in Federal District Court before Judge Colleen Kollar-Kotelly and was released on \$100,000 bond.

A person familiar with the investigation said it involved a Fox News report on North Korea's likely reaction to a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which was then pending, that condemned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tests.

Fox News said at the time that it was "withholding some details about the sources and methods by which American intelligence agencies learned of the North's plans."

The charges are part of a crackdown on disclosures of classified information to the news media under President Obama. A former contract linguist for the F.B.I. was sentenced in May to 20 months in prison for disclosing secret documents to a blogger, and a veteran National Security Agency official is awaiting trial on charges of sharing classified information with a reporter for The Baltimore Sun.

In addition, the Justice Department is seeking to question a reporter for The New York Times, James Risen, about his sources for a book about the C.I.A. that describes a program devised to disrupt Iran's nuclear weapons program.

News media and civil liberties advocates have criticized the prosecutions, noting that Mr. Obama came into office pledging to insist on openness about government operations.

Administration officials have said there is no contradiction between the transparency policy and aggressively punishing those who leak secrets.

David S. Kris, the assistant attorney general for the Justice Department's national security division, said in a statement that "the willful disclosure of classified information to those not entitled to it is a serious crime."

But Abbe D. Lowell, a lawyer for Mr. Kim, denounced the charges as an attempt to criminalize "the type of government-media exchanges that happen hundreds of times a day in Washington." He said the charges would "destroy the career" of Mr. Kim, whom he called "a loyal civil servant and brilliant foreign policy analyst."

스티븐 김이 북한 관련 정보 누설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사
(출처 : 뉴욕타임스[www.nytimes.com], 2010년 8월 27일자)

왜 다시 스티븐 사건인가

스티븐이 새삼 주목받게 된 것은 지난 5월 미 정부의 언론인 사찰이 문제되면서다. 미 정부가 스티븐과 접촉했던 폭스뉴스 로젠 기자에 대해 광범위한 뒷조사를 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법원의 수사기록과 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미 정부는 로젠 기자 가족의 이메일, 통화내역까지 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 법무부는 모든 걸 합법적으로 진행했다고 하지만,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언론인에 대해 이처럼 광범위한 조사를 벌인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미 정계와 언론계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다.

더군다나 미 법무부의 압수수색 영장은 로젠 기자를 공동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

다. 기자를 사실상 피의자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미 법무부가 로젠 기자에 대해 한 번도 공식 조사를 한 적이 없는데 이미 상당한 뒷조사를 한데다 피의자 취급을 하고 있으니 미 언론들이 경악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로젠 기자가 보안카드를 이용해 국무부 본청을 출입한 시간대별 기록을 스티븐의 출입기록과 대조한 것은 물론이고, 두 사람의 통화와 이메일 내역이 모두 조사됐다.

미국에서는 리크 사건에 연루된 언론인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돼 있다. 조사를 해봤자 언론이 취재원 보호를 위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익도 없다. 이로 인해 각종 리크 사건이 발생해도 언론 자유는 위축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로젠 기자가 전례 없이 전방위적 사찰을 당한 셈이다. 이번 사건이 ‘언론인 사찰 및 언론자유 탄압사건’으로 불리는 이유이다.

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미국이 언론활동을 범죄시하기 시작했고 그걸 미국인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이건 정말로 도가 지나치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를 조사할 특별검사나 독립조사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의원도 “새 규칙과 독립적인 중재자가 필요하다”면서 “지금 은 둘 다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레이엄 의원과 함께 언론인 조사를 승인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새 법안을 초당적으로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로젠 기자에 대한 뒷조사는 스티븐 사건 자체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 법무부의 이 같은 조사행태가 스티븐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로젠 기자를 뒷조사하지 않고서는 스티븐에 대한 혐의사실을 밝혀내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미 법무부의 스티븐 조사가 벽에 부딪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도 가능하다.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로젠 기자 조사가 문제된 뒤 스티븐 사건에도 유화적 분위기로 변하고 있다. 워싱턴 DC 지방법원 콜린 코랄-코틀리 판사는 지난 6월 4일 스티븐의 변호사인 애비 로웰 변호사가 연방검찰이 부당하게 압수한 증거들을 제대로 열람하지 못하게 한다면서 재판부의 조치를 촉구하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보여주라’는 취지의 주문을 검찰에 내렸다. 기소된 지 3년 만에 변호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열람이 허가된 것이다.

재판도 빨라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 법무부의 무리한 수사라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무조건 장기화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지금까지 재판이 늦어진 것은 미 법무부가 사건 변호에 필요한 자료를 기밀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당한 변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검사측과 변호인 사이에 공방이 계속돼왔다.



폭스뉴스의 제임스 로젠 기자
(출처 : 폭스뉴스 홈페이지[www.foxnews.com])

스티븐은 누구

스티븐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티븐이란 개인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필자가 스티븐을 알게 된 것은 2009년 12월경이다. 워싱턴 DC의 한 모임에서 스티븐을 처음 보고 줄곧 관계를 이어가게 됐다.

스티븐은 낯선 사람을 잘 경계한다. 국무부에서 기밀 정보를 오랫동안 다뤄온 데 따른 습관이라는 것이다. 스티븐이 필자를 처음 만났을 때도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저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첫마디로 꺼냈다. 타인이 접근해도 즉각 반응하지 않고 신중하게 응대하는 편이다.

스티븐은 원래 한국인과 잘 교류하지 않았다. 이는 국무부에서 일하는 한국계 관료들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기도 하다. 국무부에서 한국과장을 거쳐 현재 주한 미국 대사로 일하고 있는 성 김 대사도 비슷했다. 한국인과 교류를 하게 되면 괜한 오해를 부를 수 있고, 정보 유출의 의심을 받을 가능성도 커진다.

스티븐 사건이 터졌을 때 한국 사회에서 그다지 발 빠르게 반응하지 않는 것도, 스티븐과 한국 교민사회와의 단절이 하나의 이유로 작용됐다. 교민사회에서는 스티븐이 누군지도 모르고, 스티븐과 특별히 교류하는 사람도 없었다. 스티븐은 그저 혼자 힘으로 미국 대학 교육을 마치고 자수성가한 인물이다.

스티븐은 9세의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 뉴욕으로 이민을 왔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서 아버지로부터 식탁에서 “오늘의 뉴욕타임스 사설 내용이 뭐냐. 그걸 모르면 밥 먹을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듣고 자랐다. 서울대 상대를 나온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강했다. 스티븐은 조지타운대를 거쳐 하버드대 석사와 예일대 박사 학



스티븐 김이 몸 담았던 리버모어 연구소 전경
(출처 : 위키피디아[en.wikipedia.org])

위를 거머쥐었다. 한 살 연상인 누나 유리 루텐버거도 컬럼비아대를 나와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가 됐다. 아버지는 남매를 남부러워할 만큼 성공적으로 키워낸 셈이다.

스티븐은 아버지로부터 법대 진학을 권유받았지만 역사학을 택했다. 스티븐은 조지타운대에서 유럽 현대사를 공부했다.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과 윌리엄 예이츠에 흠뻑 취했고, 1815년 빈 회의의 주도멤버인 메테르니히와 탈레랑, 캐슬레이 등 3인을 특히나 좋아했다고 한다.

이들은 냉혹한 현실분석으로 현대 외교의 기초를 닦은 인물들이다. 스티븐은 필자에게도 유난히 메테르니히가 현대 외교학의 아버지라며, 서양 외교는 그에 의해 시작됐다는 말을 자주 했다. 메테르니히에 의해 형성됐던 초기 외교란 정상적인 설득 과정이라기보다 술과 파티를 동원한 세뇌과정이라고 했던 스티븐의 말이 자주 생각난다. 외교란 그만큼 냉혹하다는 것이다.

스티븐은 “미국인에게 지기 싫어 미국 주류 학생들이 주로 공부하는 유럽 역사를 놓고 정면 대결을 펼쳤다”고 말했다. 유럽적 전통과 교육 속에서 자란 미국인에 비해 한국인들은 아무래도 공부에 힘들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박사학위 취득 후 스티븐은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종신(테뉴어) 교수직을 제의받았

지만, “똑같은 강의를 30년 하고 죽고 싶진 않다”는 생각 때문에 고심 끝에 포기했다고 필자에게 말한 적이 있다.

스티븐은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역사를 만드는 일에 뛰어들고 싶어 했고, 군사정보 및 군사전략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미 해군전략 연구소를 첫 직장으로 택했다. 2년 후 리버모어 연구소로부터 영입제의를 받아들여 직장을 옮겼다. 리버모어 연구소는 핵무기를 개발한 미 최대의 국립 핵 연구소이다.

리버모어 연구소에서 핵 지식을 습득한 스티븐은 북핵 국면에서 발군의 분석 실력을 발휘하면서 워싱턴에 이름을 알리게 됐다. 국방부와 국무부 등 10여 개 정부기관에서 10여 년간 파견형식으로 일을 하게 됐고, 기소직전 국무부에서 선임 보좌관을 맡고 있었다.

미국에서 만났던 스티븐

스티븐은 필자를 만나고 얼마 후 간첩죄로 기소됐다. 스티븐의 기소 계기가 된 폭스뉴스의 기사는 2009년 6월 11일 게재됐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곧바로 이 기사에 대해 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고, 스티븐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당시 스티븐이 폭스뉴스의 로젠 기자와 자주 접촉했었고, 국무부에서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티븐은 2009년 3월 국무부 공보담당자로부터 로젠 기자에게 북한 문제를 설명해주라는 요청을 받고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뉴스 기사의 내용은 그리 대단한 정보도 아니며, 정보라기보다는 상식에 가까웠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후 추가 핵실험 등으로 대응할 것이란 내용인데, 중앙정보국(CIA)을 정보소스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관련 기사가 게재된 뒤 FBI 수사관이 국무부의 스티븐 자리로 찾아왔으며,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있는 자택에 대한 수색도 벌어졌다.

스티븐은 당시 필자와 교류를 하고 있었지만, FBI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고 끝까지 숨겼다. 아마 당시로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짐작한다.

그러다가 8월 간첩죄로 전격 기소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당시 미 언론에는 누군지 알 수 없게 기사가 실렸으며, 스티븐이 그제야 필자에게 자신이 기소됐다고 밝힘에 따라 문화일보에 자세한 기사를 실을 수 있었다.

스티븐은 기소 당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다. 스티븐은 미 법무부의 플리바게닝 제안을 거절할 만큼 결백을 자신했었다.

스티븐은 이후 워싱턴 DC 지방법원에서 심리를 받았다.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증언을 위해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도착한 스티븐 김
(출처 : the guardian, 「South Korea press leak blamed on US state department analyst」, 2010년 8월 28일자)

미 의회의사당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 필자는 스티븐이 첫 법정에 출두한 날부터 2012년 7월 특파원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2년간량을 꼬박 동행했다. 기자라기보다는 지인으로서 동행했다는 게 맞을 것이다.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28A 법정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미 법원의 재판 절차는 한국과 달랐다. 한국은 기소가 되면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에 재판기일을 잡게 되고 정식 재판을 하게 된다. 이후 1심 판결이 나고 항소심 등으로 이어진다.

반면 스티븐의 경우 기소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있다. 기소된 2010년 8월부터 지금까지 만 3년이 넘도록 정식 재판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지금 법정에 출두하는 것은 일종의 청문회 성격이다. 약 2~3개월에 한 번씩 재판부와 피의자측, 검찰측이 모여 사실 관계와 증거서류 제출 등에 대한 다툼을 벌인다. 사건 조사를 진행하면서 플리바게닝 등을 시도하고, 증거서류를 변호인측에 넘겨 변호를 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을 확보한다. 하지만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피의자는 상상 이상의 고통을 호소하게 된다. 사건이 종결되지 않음에 따라 직장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변호사 비용이 천정부지로 쌓이게 된다.

스티븐은 국무부에서 해고됐지만 다행히 원래 다니고 있던 리버모어 연구소로부

터는 해고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월급의 대부분을 소송비용에 쏟아 붓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 소송 초기에는 많은 나날을 술로 달래야 했다.



스티븐 김의 변호사인 애비 로웰
(출처 : NY daily news[www.nydailynews.com])

스티븐의 북한 정보는 어느 정도일까

스티븐이라는 사람을 알면서 가장 궁금한 것은 그가 가진 대북 정보의 양이다. 이는 지금 재판과정에서도 논란의 한축을 형성하고 있다.

스티븐 변호사인 애비 로웰은 “스티븐이 국무부 내에서도 가장 많은 양의 대북 정보에 접근 가능한 인물이었다”면서 “스티븐이 그렇게 많은 정보를 10년간 봐왔는데, 고작 북핵 실험에 관한 단편 정보를 폭스뉴스에 흘릴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고 방어하고 있다. 스티븐이 리크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기밀 정보를 흘렸을 것이란 얘기다. 이는 스티븐이 굳이 리크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통상 리크를 하는 사람들은 목적을 갖고 있다. 최근 미 사회에 불고 있는 내부정보 폭로자인 휘슬블로어(whistle blower)들은 미 정부의 정보통제에 대한 저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스티븐은 정보를 흘림으로써 얻는 실리도 없고, 이를 통해 확보하고 싶어하는 명성도 없다는 점에서 리크의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변

호인의 주장이다.

스티븐은 대북 전문가라는 점에서 상상 이상의 대북 정보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는 재판과정에서 공개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지만, 아직 정식 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런 상황은 오지 않고 있다.

다만 스티븐은 2008년 6자회담에도 상당히 관여했었다고 고백했다.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가 미국측 협상 대표였다. 힐은 어떻게든 김계관(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었지만, 스티븐을 중심으로 한 국무부 검증국과 백악관 NSC가 이를 좌절시켰다.

2008년 12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마지막 6자회담이 벌어지고 있었다. 당시 힐은 “북한이 시료채취(sampling)를 빼지 않으면 최종 협정에 참여할 수 없다고 최후통첩을 해왔다”면서 시료채취를 제외하자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자는 의견을 본국에 보냈다. 힐은 “현 단계에서 그동안 협상을 수포로 돌리지 않으려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티븐이 몸담고 있던 검증국은 힐의 제안을 거절했다. 검증국은 “시료채취 없이는 현재 북한 핵개발 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향후 북한이 핵개발 시도를 다시 할 때, 그것이 과거의 연장인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과학적 근거를 가질 수 없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 NSC도 검증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힐은 마지막 단계에서 협상 타결에 성공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국했다. 당시 스티븐과 직속 상관이던 폴라 드서터 검증국 차관보는 대북 원칙론을 고수한 것이다. 검증국은 국제적 조약과 협상 등이 제대로 맺어지는지를 평가하는 기관이어서 6자회담도 마지막에 검증국의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때부터 스티븐은 국무부 내에서 북핵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로 명성을 쌓게 됐다. 북핵 문제의 협상당사자는 동·아·태국이지만, 최종 결



폴라 드서터 당시 미 검증국 차관보
(출처 : 위키피디아[en.wikipedia.org])

정에서는 검증국이 힘을 발휘하는 구조 때문에 스티븐의 존재가 부각될 수 있었다. 폴라 드서터 당시 검증국 차관보 역시 스티븐의 보좌에 힘입어 북핵 국면에서 결정적으로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도 방문했다.

이 때문에 당시 국무부 내 협상파들이 스티븐을 꺾끄럽게 여기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스티븐이 간첩혐의로 기소된 것은 오바마 행정부와 호흡을 맞춘 협상파들이 대북 강경파인 스티븐에 대해 정치적으로 공격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취재 후기

스티븐은 미 국적을 갖고 있지만 철저한 한국인이다. 9살에 이민 온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한국어가 유창하다. 가령 워싱턴에서 만난 한국계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한국어를 들긴 하지만 말하진 않는다. 말하는 것이 어눌하기 때문에 아예 한국어를 하지 않는다. 한국인을 만나도 한국말을 쓰지 않는다. 워싱턴에는 한국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 대학시절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는 이상, 한국말에 어색함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티븐은 “밖에서는 미국인과 일대일로 경쟁했고, 집에서는 철저히 한국인으로 살았다”고 말했다. 그것이 아버지의 가정교육이었다. 한국말을 잊지 않기 위해 집에서는 한국어로만 대화했다. 아버지가 서울대를 나오고 어머니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대학 강단에 설 만큼 엘리트 집안이지만, 오히려 더욱 엄격하게 한국인의 뿌리를 강조한 것이다.

그렇지만 대학교육부터는 철저히 스스로 책임지는 미국식 방식에 따랐다. 부모는 스티븐과 누나에게 대학 학비를 전혀 지원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대학부터는 자신이 책임지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철학이었다.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 학업을 이어갔다고 했다.

필자는 스티븐 집안의 모든 분을 직접 만났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스티븐이 기소

된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스티븐의 재판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했다.

스티븐의 누나는 법정투쟁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는 스위스 남편을 따라 스위스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다. 스티븐 구명 사이트에 각종 글도 스티븐의 누나가 대부분 직접 쓰거나 감수를 했다. 미 법조계에 있는 컬럼비아대 로스쿨 인맥을 활용해 스티븐의 구명에 나서고 있다.

스티븐은 미국 생활 당시 필자의 집에서 자주 잠을 청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재판 탓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필자와 함께 소주잔을 기울였다. 대리운전이 활성화되지 않은 미국에선 술을 마신 뒤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귀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스티븐은 술을 마시면 “너무 억울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이민 첫째 미 초등학교에서 말을 못해 미국 학생들로부터 조롱을 받으며 시작한 눈물겨운 이민사가 한꺼번에 그려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최고 학벌을 갖춘 뒤 미 정부에서 일했지만, 지금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힘겨운 법정투쟁뿐이다.

미국이라는 사회의 거대한 벽을 느낀다고도 했다. 그동안 자신이 미국의 주류 사회에 어느 정도 편입됐다고 생각했으나, 결국 전혀 아니란 사실을 체감해야 하는 고통의 시간들이다.

1년 정도면 끝날 줄 알았던 재판이 3년 이상 이어지면서 미국 사회의 또 다른 문제점을 보게 됐다. 국익이라는 잣대에 걸릴 경우 개인은 끝없이 추락할 수 있는 것이 미국 사회다. 한 개인의 절규는 거대한 빅 브라더 사회 속에서 잘 들리지 않는 고독한 외침일 뿐이다.

한국인들은 미국에서 여전히 이방인이고 소수인이다. 철저히 미국인 행세를 해야 겨우 살아갈 수 있다. 스티븐은 “재판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다”고 곧잘 말하곤 했다. 워낙 지친 탓이다. 한평생 미국에서 생활한 스티븐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지금 현재 스티븐은 길고 지루한 법정투쟁으로 멎들어있다. 스티븐의 자화상은 모든 한국계 미국인의 현재이자 미래일 수 있는 것이다.